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고령 농가의 정주활동구조 연구

이윤희 · 배연정 · 이지민* · 이정재** · 서교**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수연구원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Time Allotments for Activities of Rural Elder Population

Lee, Yoonhee · Bae, Yeonjung · Lee, Jimin* · Lee, JeongJae** · Suh, Kyo**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e time management and allotments for various activities of daily life is much different by age groups. This study analyzes time allotments of different age groups for various activities of daily life to figure out the change of main activity by aging through 2009 time use survey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specially we focus on time allotments of rural elderly population and intangible factors for life quality of people instead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large gap of time allotments for paid and unpaid working time of rural and urban elderly population. Whereas the time for leisure of elderly women in rural areas is much shorter than that of urban elderly women and rural elderly men spend more time to provide community services and help to other households. However, the percentage leisure time of rural elderly people for passive activities such as TV, radio, magazine etc. is longer than that of urban elderly people. We hope that our analysis data could be used for developing new policies and project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rural elderly population.

Key words : rural elderly population, time allotment, time use, spatial behavior

I. 서 론

농촌은 낙후된 삶의 질 문제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 11%인 반면 읍·면부의 경우에는 약 21%, 특히 면부 비율은 27%에 달해 이미 농촌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농촌지역의 취약한 삶의 질 환경은 농촌 고령인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비교에 관한 연구(석소현 외, 2008; 손신영, 2006)에서 농촌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보다 우울한 정도가 높고 자아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농촌지역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석소현 외, 2008; 최연희, 2004; 김숙경, 2004).

정부는 낮은 삶의 질 환경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취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농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촌 지역 고령인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 고령인의 삶의 질에 차이는 여전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강현욱 외(2012)는 농촌 고령인이 도시 고령인보다 우울 정도가 높다고 하였고, 이택영 외(2010)는 농어촌 노인이 도시 노인보다

Corresponding author: Lee, JeongJae

Tel : 02-880-4581

E-mail : ljj@snu.ac.kr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의 방향은 옳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 방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성과가 미흡한 근본적인 이유는 송미령(2009) 등의 연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간의 정책 지원 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구를 중심으로 한 외적 기준에 따르게 됨으로써 전통과 관습 및 가치기준의 다름에서 오는 정책집행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송미령(2009)은 중앙행정기관이 설정하고 있는 농촌 정책 목표가 기한년도까지 몇 개소 시설 설치, 인구나 면적 대비 획일적 시설기준 설정, 선진국이나 도시지역 평균 수준 달성 등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농촌정주환경은 물리적 공간이기 보다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유무형적인 요소들의 종합체로 볼 수 있으므로(농어촌연구원, 2008) 농촌 지역의 관습 및 가치기준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농촌 고령인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은 고령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변화가 필요하다. ‘제1차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센터,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설치, 건강장수마을육성, 경영이양직불제, 가사활동지원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들의 주요 골자는 농촌 고령인의 복지확충과 소득 보전과 같은 정량적 목표이다. 이 가운데 건강장수마을육성 사업을 제외하면 농촌 고령인의 관습과 같은 정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채화영 외(2011)는 일상의 생활은 되풀이되고 습관화되어 있는 개인 주체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사회성이 내포되어 있어 사회전체 구조에 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여, 일상생활의 조사를 통해 사회구조를 잘 표현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생활 습관을 살펴볼 수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일상생활의 개별 행위의 분류와 그 시간량을 나타내므로, 농촌 사회구조의 정성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고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고령인의 일상 습관과 같은 정성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 고령인의 일상 생활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농가 집단 내에서 고령자의 일상생활 행위별 시간사용형태를 다른 연령대와 비교분석하고, 다음으로 고령인 집단 내에서 농가의 시간 사용형태를 비농가 집단과 비교분석 한다.

II. 연구사

농촌정주환경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정주환경의 정비와 시설에 관한 연구와 지역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김대식, 2010). 먼저 정주환경의 정비와 시설에 관한 연구로는 정비사업의 우선 순위, 필요시설 분류 그리고 시설의 배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대식 외(2001)는 사업의 집중 투자를 통해 정비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심마을 선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필요 시설 분류와 배치 계획에 관한 연구로는 임승빈 외(1995), 윤원근 외(1998), 최수명 외(1998), 허학영 외(2002), 나준엽 외(2006), 신영선 외(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기존 시설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 전문가에 대한 설문, 대상 지역에 대한 다원적 평가 등을 통해 필요 시설의 선정과 입지를 정하였다. 지역특성연구는 지역의 전반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국토연구원(2007), 김대식(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 등의 연구가 있으며, 특정분야에 중점을 둔 지역특성연구는 서교 외(2003)의 어메니티 지표체계, 이상호(2008)의 삶의 질 지표, 권정아(2001)의 환경친화적 농촌개발 지표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점수화하여 진단 지표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국토연구원(2007)은 농촌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으로 구성된 농촌진단지표 체계를 설정하였으며, 김대식(2010)은 정책이나 사업 시행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마을단위의 자료 획득이 가능한 지표 목록을 선정하여, 농촌마을 단위의 정주환경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사업 시행 전 농촌 마을의 상태를 진단 평가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c)은 기초생활권 지역 여건과 특성 판단에 유의미한 지표들을 객관적인 데이터 생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역발전지수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기초생활권 시군의 발전 정도와 잠재역량 등 지역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상호(2008)는 주관적 요소를 제외하고 객관적이고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한 영역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고 지역별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서교 외(2003)는 농촌의 잠재가치인 어메니티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추출이 가능한 지표로 선정하고, 권정아 외(2001)는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위에 지표들의 세부 지표 항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이러한 기존의 농촌 지역 진단 지표에 관한 연구는 Table 1의 세부조사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물리적

인 생활환경을 규명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농촌정주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무형적인 요소를 밝히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지표 외에 박창석 외(2001)는 지역시설 계획을 위해 마을 공동행태, 개인중심행태, 서비스 이용행태로 분류한 정주 행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분석하였고, 서교 외(2006)는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활동, 사회활동, 생산활동, 외부활동, 내부활동 등으로 정주활동을 분류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 연구자가 지역 주민의 행위를 조사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조사 표본의 수가 제한적이고, 일부 지역으로 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비교가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사용 자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급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

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국민계정체계에 가계 위성계정을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되며, 각종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청, 2010). 특히, 비시장노동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여성 노동의 경제적 기여도와 사회적 지위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여가 생활과 이동시간대 및 교통수단 정보가 있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일과 가정 생활, 여가의 균형 정도, 교통시설 및 도시기반시설 평의 정도를 파악하여 복지 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밖에 노동력 분석, 사회변화의 파악 및 대처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손애리, 2000).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3회 (1999년, 2004년, 2009년)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에서 추출된 표본조사구에서 약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21,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각의 가구원이 이틀간의 시간일지를 작성하였다. 10분 간격으로 행동이 기입된 총 시간일지 수는 40,526일간의 자료이며 행동분류체계는 9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144개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다.

Table 1 지역 진단 지표 선행 연구

지표명(연구자)	평가 항목	대표적 세부 조사 지표
농촌진단지표 (국토연구원, 2007)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	인구증감, 외국인 정주, 인구노령화, 산업별 종사자수, 겸업농가수, 전담·산지 면적, 도시성 토지 면적, 아파트 비율, 행정중심지 접근성, 고속도로 IC까지 거리, 노후 주택 비율, 도로현황, 정보화 현황, 상하수도 보급률, 오염시설수, 의료인수, 고교학생·교원 수, 문화공연시설 수, 체육시설 수 등
농촌마을 정주환경지표 (김대식 외, 2010)	인적자원 구성, 주민건강 및 삶의 질, 산업경제 기반, 생활여건환경자원, 정주기반 기본시설	인적 구성, 삶의 질 만족도, 농경지면적, 산업시설 개수, 농산품 재배면적 비율, 방문객 수, 면·시군소재지에서 거리, 통과 버스 대수, 어메니티 자원 개수, 혐오시설 개수, 환경오염정도, 노후주택비율, 마을회관, 노인정 방문객센터 개수, 상하수도 보급률, 의료·복지·교육·문화시설 수 등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c)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신규주택비율, 상하수도 보급률, 공·사교육시설수, 인구 1천명당 의료인·병상 수, 보육시설수, 노인복지시설수, 총 사업체수, 주민세, 재정자립도, 공원면적, 녹지율, 인구1천 명당 문화·체육시설 수, 인적 자원 등
삶의 질 지표 (이상호, 2008)	지역경제 및 인구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 생활환경분야 문화·여가분야	사업체수, 인구수, 유치원·학교 수, 보건소·병원·약국·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수, 상하수도보급률, 경찰·소방관서 수, 금융기관수, 도로포장률, 문화·체육·공원 수 등
농촌어메니티 지표 (서교 외, 2003)	생명안전, 자연, 역사문화, 산업, 생활	병상당 인구수, 복지시설당 수용인원비율, 환경오염시설 수, 재난사고인원 인구율, 공원면적 비율, 가축전염병발생률, 문화계수, 체육용지비율, 문화공간가능인구수, 보육시설 당 보육아동 수, 경지정리비율, 상하수도보급률, 금융기관 당 이용인구수
환경친화적 농촌개발 지표 (권정아 외, 2000)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지역특성, 주민참여	하천·녹지·공기·토양의 깨끗함, 개량주택·대중교통·배차간격·공공시설·복지시설·도시시설·상하수도시설·쓰레기처리 현황, 마을인구, 주민 소득, 지가, 지역자랑거리, 마을주민모임 등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행동목적에 따른 기존의 분류체계를 농가 고령인의 정주활동 요소 분석을 위해 Table 2와 같이 재분류하였다. 통계청 대분류 '개인유지'항목은 개인유지와 건강관리로 세분화하고, '일'항목 또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시간으로 다시 분리하였다. 또한 초중고대학(원)생, 직업전문학교 학생의 학습활동에 관련된 '학습'항목은 삭제하였으며, '교제 및 여가활동'항목은 고령인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과 여가활동의 질을 고려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재구성된 행위분류의 대분류 항목 14가지에 대하여 t-

검정과 크루스칼-왈리스(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여 고령인 집단과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 및 고령인 집단 내에서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활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김진옥, 2006) 이러한 모든 분석은 기본적으로 남녀를 분리한 후 실시하였으며, 요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일에는 5/7,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1/7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전체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농가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크고, 비농가는 25-44세 연령대 비율이 크다. 농가의 고학력자의 비중은 비농가보다 낮게 나타나고,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비농가보다

Table 2 행위 재분류

대분류	세분류	대분류	세분류
개인유지	수면	가족보살피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식사 및 간식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개인관리		배우자 보살피기
건강관리	건강관리(의료적)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유급노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노동			무급가족종사일(농림어업제외)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참여활동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자원봉사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교제활동	교제활동
	의류 관리	일반인의 학습	일반인의 학습
	청소 및 정리	미디어이용	미디어 이용
	집 관리	종교활동	종교활동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관람 및 문화 행사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가정경영	스포츠 및 레저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기타 가사일	취미 및 여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Table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분류	(단위 : 명)								
	남성				여성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해당자	비율	해당자	비율	해당자	비율	해당자	비율	
연령	25-44세	256	19.8%	6,536	48.3%	190	13.4%	7,192	47.9%
	45-64세	496	38.4%	5,282	39.0%	600	42.2%	5,326	35.5%
	65세 이상	540	41.8%	1,716	12.7%	632	44.4%	2,504	16.7%
혼인 상태	배우자 있음	1,042	80.7%	10,752	79.4%	1,004	70.6%	11,074	73.7%
	배우자 없음	250	19.3%	2,782	20.6%	418	29.4%	3,948	26.3%
교육 정도	무학	102	7.9%	224	1.7%	420	29.5%	1,076	7.2%
	초등학교	416	32.2%	996	7.4%	570	40.1%	2,202	14.7%
	중학교	266	20.6%	1,296	9.6%	168	11.8%	1,710	11.4%
	고등학교	348	26.9%	5,044	37.3%	176	12.4%	5,636	37.5%
	대학교 이상	160	12.4%	5,974	44.1%	88	6.2%	4,398	29.3%
경제 활동 여부	일을 했음	1,180	91.3%	10,854	80.2%	1,150	80.9%	7,470	49.7%
	일을 하지 않았음	112	8.7%	2,680	19.8%	272	19.1%	7,552	50.3%
월평균 소득	없음	88	6.8%	944	7.0%	504	35.4%	6,252	41.6%
	50만원 미만	200	15.5%	956	7.1%	406	28.6%	2,008	13.4%
	50만원~100만원 미만	362	28.0%	1,492	11.0%	350	24.6%	2,624	17.5%
	100만원~150만원 미만	244	18.9%	1,624	12.0%	102	7.2%	1,718	11.4%
	150만원~200만원 미만	200	15.5%	2,554	18.9%	44	3.1%	1,190	7.9%
	200만원이상	198	15.3%	5,964	44.1%	16	1.1%	1,230	8.2%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 농가는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81%로, 비농가 50%와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월평균소득은 비농가 남성의 2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율이 44.1%로 농가 남성 15.3%와 큰 차이를 보이고, 여성 역시 200만원 이상 소득자 비율은 농가 1%, 비농가 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농가가 경제활동 참여율은 높지만, 소득은 비농가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과 및 고찰

1. 연령별 비교 분석

가. 연령별 비교

연령별 생활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농가와 비농가를 구분하지 않고, 연령대 별로 25~44세, 45~64세, 65세 이상인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행위에 따른 투입시간 평균의 차이를 크러스칼-왈리스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행위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활동의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집단은 남녀 모두 건강관리에 쓰는 시간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유급노동의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신체적 노화와 은퇴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판단된다. 유급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반해, 무급노동시간은 고령 남성의 평균시간은 12.98분으로 다른 연령대의 시간량과 비교하면 크게 늘

어났고, 여성은 35.11분으로 45-64세 집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관리 시간은 고령 남성이 52.11분으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그 값이 크긴 하나 고령 여성 175.61분보다 작으며, 특히 고령 여성은 45-64세 집단과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 65세 이상 여성 고령자의 무급노동과 가정관리활동이 45-64세 여성의 삶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여가로 분류되는 일반인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여가 활동 시간의 총계는 고령자 남녀 각각 385.82분, 214.41분으로 확연히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그 중 미디어의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고령 남성은 그 값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도 매우 크고, 고령 여성보다도 그 수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 여성의 미디어 이용시간 역시 다른 연령 여성 집단보다 큰 값을 보인다. 이는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여가 등에 쓰이는 시간량에 비해 매우 큰 값으로 고령인의 여가활동이 수동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다고 사료된다.

나. 농가 집단 내에서 연령별 비교

농가 내에서 연령 변화에 따른 삶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농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연령별 차이를 크러스칼-왈리스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다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시간은 연령이 높아지면 농가 남녀 집단 모두 투입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나 앞서 분석한 Table 4의

Table 4 연령에 따른 행위별 평균 시간

(단위 : 분)

분류	남성				여성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χ^2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χ^2	
개인유지	632.85	634.77	675.69	312.47***	626.42	626.67	667.14	390.96***	
건강관리	2.13	5.17	17.70	623.73***	2.87	8.98	27.23	927.99***	
가정관리	22.33	30.43	52.11	436.76***	164.84	192.97	175.61	127.42***	
가족보살피기	16.31	5.85	8.69	288.58***	91.32	21.92	13.67	1992.91***	
노동	유급노동	361.68	341.37	128.65	1175.12***	194.20	164.48	49.64	699.20***
	무급노동	2.94	5.00	12.98	202.96***	13.36	37.84	35.11	398.09***
참여및봉사활동	1.33	1.11	2.15	35.15***	1.80	3.34	4.11	35.75***	
교제활동	40.29	41.96	49.14	12.24**	44.76	47.00	61.06	82.01***	
여가	일반인의 학습	17.42	3.61	3.83	123.51***	14.60	5.24	4.25	95.13***
	미디어 이용	109.53	144.38	243.91	1196.47***	109.61	131.78	195.51	760.99***
	종교활동	3.27	5.64	10.29	86.54***	8.96	21.77	26.05	254.85***
	관람 및 문화행사	1.81	0.49	1.08	7.04*	2.08	0.78	0.63	13.39***
	스포츠 및 레저	21.63	38.92	63.77	672.89***	18.73	32.23	31.76	211.73***
취미 및 여가	54.06	45.33	62.94	62.55***	26.26	27.66	51.46	323.57***	

*p<0.05, **p<0.01, ***p<0.001

Table 5 농가 집단의 연령에 따른 행위별 평균 시간

(단위 : 분)

분류	남성				여성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χ^2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χ^2	
개인유지	650.82	650.72	676.42	16.74 ***	637.96	633.44	656.04	21.77 ***	
건강관리	2.33	5.02	11.32	19.06 ***	2.27	12.98	24.62	36.83 ***	
가정관리	31.26	39.72	43.76	9.49 **	145.83	199.31	157.56	32.66 ***	
가족보살피기	13.98	6.91	6.47	13.49 **	69.19	15.18	7.89	85.59 ***	
노동	유급노동	268.74	300.68	235.06	16.79 ***	196.63	121.61	107.90	14.36 ***
	무급노동	28.13	10.26	17.17	10.47 **	57.28	134.76	109.54	30.84 ***
참여및봉사활동	6.07	3.31	2.90	0.77	0.81	3.33	5.35	4.00	
교제활동	42.20	51.13	45.44	2.25	37.62	40.00	50.94	3.64	
여가	일반인의 학습	8.25	1.26	1.36	3.31	12.04	1.26	3.37	3.62
	미디어 이용	139.79	170.14	199.79	36.34 ***	117.72	120.56	149.37	14.17 ***
	종교활동	3.74	3.98	2.59	1.75	2.96	8.86	8.04	4.75
	관람 및 문화행사	0.62	1.26	0.77	1.70	2.28	1.16	0.74	0.27
	스포츠 및 레저	24.37	27.51	32.46	4.02	10.70	17.84	14.06	0.63
취미 및 여가	75.83	41.33	47.52	10.76 *	35.19	22.07	38.83	31.85 ***	

*p<0.05, **p<0.01, ***p<0.001

농가와 비농가를 합한 남성 17.70분, 여성 27.23분 보다는 적은 11.32분, 24.62분으로 나타난다. 유급노동 시간은 남녀 집단 모두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Table 4의 전체 집단 평균보다 변화폭이 작게 나타나고, 65세 이상 고령자도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의 경우 특별한 정년의 시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년 연령을 지나도 유급노동을 유지하는 까닭으로 사료된다. 무급노동 시간은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그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데 반해, 여성 집단은 45-64세 134.76분에서 65세 이상 109.54분으로 다소 줄어드는 것은 매우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 여성 중 농림어업에 무급가족종사자가 많고, 자가소비를 위한 농업을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가로 분류되는 일반인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여가 활동 시간의 총계는 고령 집단이 되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Table 4의 전체 고령자 집단보다는 변화의 폭이 작다. 이는 농가 고령자의 무급 및 유급 노동시간의 양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여가 중 수동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의 이용시간이 전체 여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세 연령그룹 각각 55%, 69%, 70%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의 질은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 여성 집단

또한 전체 여가에서 미디어 이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 그룹 각각 65%, 70%, 70%로 나타났다.

2. 농가와 비농가 비교 분석

가. 농가와 비농가 비교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농가와 비농가 간 생활시간 차이를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대다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유급 노동 시간은 농가 남녀 모두 비농가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나, 무급 노동시간은 농가 남녀 모두 비농가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가 여성의 113.81분은 비농가 여성 18.07분 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 유급과 무급을 합한 노동시간은 농가 여성 283.86분으로 비농가 여성 176.77분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 전체 시간은 남성 농가는 남성 비농가보다 큰 값을 갖지만, 여성 농가는 비농가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항목보다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노동시간의 차이가 여가 시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농가는 미디어 이용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여가 항목이 비농가보다 작게 나타나고, 전체 여가에서 미디어 이용이 차지하는 시간이 67%로 나타나 비농가 57%보다 크게 나타난다.

Table 6 농가/비농가별 행위별 평균 시간

(단위: 분)

분류	남성			여성			
	농가	비농가	t값	농가	비농가	t값	
개인유지	661.74	638.11	5.868***	643.99	633.35	3.029**	
건강관리	7.20	5.56	1.574	16.77	9.08	4.154***	
가정관리	39.82	29.13	4.145***	174.10	177.46	-0.774	
가족보살피기	8.08	11.34	-2.575*	18.80	54.25	-13.929***	
노동	유급노동	266.45	322.95	-6.525***	125.05	158.70	-4.263***
	무급노동	16.66	4.20	4.743***	113.81	18.07	14.973***
참여 및 봉사활동	3.66	1.15	2.551*	3.90	2.70	1.032	
교제활동	46.98	41.85	1.982*	44.53	49.09	-2.161*	
여가	일반인의 학습	2.65	10.64	-5.918***	3.56	9.75	-4.761***
	미디어 이용	176.99	140.57	7.041***	132.92	134.22	-0.298
	종교활동	3.34	5.45	-2.155*	7.75	17.78	-7.199***
	관람 및 문화 행사	0.93	1.21	-0.545	1.12	1.35	-0.439
	스포츠 및 레저	29.02	35.40	-2.863**	15.27	27.19	-8.062***
	취미 및 여가	50.62	52.14	-0.525	31.13	31.62	-0.252

*p<0.05, **p<0.01, ***p<0.001

여성 농가는 모든 항목이 비농가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미디어 이용이 전체 여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9%로 비농가 60%보다 크게 나타나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 여가 사용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고령자 집단 내에서 농가와 비농가 비교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 대해서 농가와 비농가의 삶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각 행위별 생활시간을 t-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Table 7과 같이 다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에서는 전체 행동분류를 다시 크게 필수생활시간·의무생활시간·여가생활시간 그룹으로 나누는데, 본 연구에서 재분류된 개인유지, 건강관리 항목은 필수생활시간에,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항목은 의무생활시간으로 포함된다. 유급 및 무급 노동시간 또한 통계청의 의무생활시간에 포함되나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통계청의 여가 생활시간에 포함되나, 행위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인 관계형성과 관련된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과 개인적 만족과 관련된 나머지 여가 활동 항목들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Table 7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농가/비농가별 행위별 평균 시간

(단위: 분)

분류	남성			여성			
	농가	비농가	t값	농가	비농가	t값	
개인유지	676.42	675.46	0.140	656.04	669.97	-2.258 *	
건강관리	11.32	19.75	-3.176 **	24.62	27.89	-0.801	
가정관리	43.76	54.80	-2.375 *	157.56	180.19	-3.610 ***	
가족보살피기	6.47	9.40	-1.375	7.89	15.14	-2.720 **	
노동	유급노동	235.06	94.44	10.392 ***	107.90	34.83	6.656 ***
	무급노동	17.17	11.64	1.368	109.54	16.20	10.178 ***
참여 및 봉사활동	2.90	1.91	0.847	5.35	3.80	0.850	
교제활동	45.44	50.33	-1.188	50.94	63.63	-3.213 **	
여가	일반인의 학습	1.36	4.62	-2.546 *	3.37	4.48	-0.695
	미디어 이용	199.79	258.10	-6.520 ***	149.37	207.23	-7.186 ***
	종교활동	2.59	12.77	-4.828 ***	8.04	30.63	-7.759 ***
	관람 및 문화 행사	0.77	1.18	-0.473	0.74	0.60	0.222
	스포츠 및 레저	32.46	73.84	-9.665 ***	14.06	36.25	-9.532 ***
	취미 및 여가	47.52	67.90	-4.245 ***	38.83	54.68	-4.441 ***

*p<0.05, **p<0.01, ***p<0.001

1) 개인과 가정에 관한 항목

개인유지, 건강관리,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항목들의 농가와 비농가 고령자 집단의 평균 투입시간을 살펴보면, 건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값이 작아 평균값만으로는 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가정관리 항목은 비농가 여성이 농가 여성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절댓값이 크고, 농가와 비농가 모두 각각의 남성 집단보다 매우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개인과 가정에 관련되는 필수·의무 생활시간 항목들은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일에 관한 항목

유급노동의 시간 차이는 남성은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투입시간이 두 배가 넘고, 여성의 경우 세 배 가량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무급노동의 경우 남성은 농가와 비농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5분 가량이고 그 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행위에 비해 작은 편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 농가의 고령 여성은 비농가의 투입 시간인 16.20분보다 월등히 많은 109.54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남성 농가·비농가 전체 집단보다 크게 높은 값이다. 농가 여성의 경우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세 이후부터 무급노동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농가 여성은 무급가족종사로 농업을 돕는 경우가 많고, 비농가와 달리 농가에서는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인 은퇴연령이 지나도 남성이 계속 유급노동을 유지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여성 또한 무급가족종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은퇴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농업의 특성상 농촌에서 생산적인 노년기를 보낼 기회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적 관계형성에 관한 항목

참여 및 봉사활동의 시간은 모든 집단에서 매우 작게 나왔으나 교제활동은 모든 집단에서 45분 이상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 활동과 교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와 비농가를 달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가 집단의 경우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활동, 이 두 가지의 공간적 범주 및 활동의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고, 고령이 되어도 주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회적 지지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비농가의 경우는 은퇴와 동시에 주업을 통한 사회적 활동이 중단되고 지역사회에 편입되게 되는데, 은퇴 이전까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사회적 피부양자라는 고령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와 비농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한 활동량과 질은 다르다고 사료된다.

4) 여가에 관한 항목

여가로 분류되는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 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여가 항목에는 남녀집단 모두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와 비농가 집단 사이에 유급·무급 노동시간 사이의 큰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동적 여가 행위인 미디어 이용이 모든 집단에서 매우 큰 값을 갖고 있어 농가·비농가 모두 여가의 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미디어 이용이 전체 여가 활동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고령 농가가 70%, 비농가 62%, 여성 농가는 70%, 비농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남녀 집단 모두 전체 여가생활에서 미디어 이용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가가 비농가보다 크게 나타나 농촌지역 고령자의 여가활동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시간량의 투입 양상과 행위 자체의 성격에 따라 전체 행동 분류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각 항목의 시간투입량 총합을 정리한 것은 Table 8과 같다. 개인유지, 건강관리, 가정관리, 가족보살

Table 8 65세 이상 고령자 집단의 농가/비농가별 평균 시간

(단위: 분/일, 시간/주)

분류	남성				여성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개인유지 및 가정관리	737.97	(86.1)	759.41	(88.6)	846.11	(98.7)	893.19	(104.2)
노동	252.23	(29.4)	106.08	(12.4)	217.44	(25.4)	51.03	(6.0)
사회 참여	2.9	(0.3)	1.91	(0.2)	5.35	(0.6)	3.8	(0.4)
친분 유지	45.44	(5.3)	50.33	(5.9)	50.94	(5.9)	63.63	(7.4)
개인적 만족	284.49	(33.2)	418.41	(48.8)	214.41	(25.0)	333.87	(39.0)

피기 항목은 ‘개인유지 및 가정관리’ 항목으로,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은 ‘노동’ 항목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은 ‘사회 참여’, 교제활동은 ‘친분 유지’,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 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및 여가 활동은 ‘개인적 만족’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같은 성별 집단 내에서는 개인유지·가정관리 항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간에서의 차이가 개인적 만족을 위한 시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5가지 분류 항목에 농가 여부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을 이원배치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유지 및 가정유지 항목은 성별과 농가 여부에 대하여 상호작용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차이에 따라 개인유지 및 가정유지 시간량에 대한 농가와 비농가의 효과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은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아 성별의 차이에 따른 농가와 비농가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고령자 집단의 성별과 농가/비농가에 따른 효과 분석

항목	비교 항목	F value
개인유지 및 가정유지	성별	451.46***
	농가 여부	35.53***
	성별 * 농가 여부	5.41*
노동	성별	42.22***
	농가 여부	537.13***
	성별 * 농가 여부	3.06
사회 참여	성별	4.21*
	농가 여부	1.72
	성별 * 농가 여부	0.14
친분 유지	성별	17.78***
	농가 여부	13.19***
	성별 * 농가 여부	2.73
개인적 만족	성별	120.17***
	농가 여부	331.52***
	성별 * 농가 여부	1.12

*p<0.05, **p<0.01, ***p<0.001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유·무형적인 요소들 가운데 기존 연구들이 중점

적으로 다루었던 유형적인 요소가 아닌 정주환경의 무형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고령 농가의 정주활동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자료를 통해 인간의 행위에 기반한 무형적인 요소인 무급노동, 참여 및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 참여 활동, 교제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 투입량을 살펴볼 수 있었고, 연령별 정주활동의 변화, 농가 내에서의 연령별 활동 변화 및 농가 와 비농가 고령자의 활동을 비교를 통하여 농가 고령자의 정주활동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의 농가와 비농가 집단은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급노동 평균 시간량은 남성 고령 농가 235.06분으로 비농가 94.44분보다 두 배가 넘는 큰 값을 보이고 있다. 여성 고령 농가도 107.90분으로 비농가 34.83분의 세 배 가량 되고, 특히나 농가 여성은 무급노동에도 109.54분을 할애하여 비농가 여성의 16.20분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2. 고령 농가는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량이 남성 287.49분으로 비농가 418.41분에 비해 130여분가량 적고, 농가 여성 또한 214.41분으로 비농가 333.87분보다 110분가량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의 이용과 같은 수동적인 여가 행위가 전체 여가 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은 농가 남성 70%, 여성 70%로, 비농가 남성 62%, 여성 62%의 값보다 남녀 모두 8%가량 높게 나타나 양적, 질적 측면 모두 고령 농가가 비농가에 비해 열악한 여가 행태를 보여주었다.

3. 나머지 개인유지 및 가정유지, 사회적 참여와 친분 활동 등은 농가와 비농가의 시간 투입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노동 시간의 차이가 여가 시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 특히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활동은 전체 양은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노동 활동과 교제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와 비농가를 달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가는 참여 및 봉사활동과 교제활동 이 두 가지 활동의 공간적 범위와 활동 범주가 크게 다르지 않고, 고령이 되어도 주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회적 지지를 보완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비농가는 은퇴와 동시에 주업을 통한 사회활동이 중단되고 은퇴 이전까지 소속감이 크지 않았던 지역사회에 편입되므로 실질적 사회적 관계는 교제활동으로만 얻고 있으며, 사회적 피부양자라는 고령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회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농가 고령자의 생활시간 분석 결과의 함의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은 이미 생산적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고령 농가는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도 일정부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들이 소득을 위해 힘겨운 노동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농가의 경험을 농업 생산 증진과 고령인의 소득 향상과 연결하여, 고령인의 소득과 그들의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인의 열악한 여가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시설의 확충은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농가 고령인의 수동적인 여가 활동 시간을 참여 및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참여의 활동으로 전환시켜 고령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농촌 지역 거주민 중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령인의 정주 특성 분석을 실시한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도시와 농촌의 지역별 생활행태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목적별 이동 시간자료를 통해 농촌지역 교통여건과 농촌정주환경 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08996)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참고문헌

1. 강현욱, 박경민, 2012, 도시와 농촌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韓國老年學, 32(1), 129-143.
2. 국토연구원, 2007, 농촌지역특성의 진단지표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3. 권정아, 이동근, 최재용, 2000,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3(3), 29-36.
4. 김대식, 전택기, 배승중, 2010, 농촌마을단위의 정주환경진단지표 개발, 농촌계획, 16(3), 27-41.
5. 김대식, 정하우, 2001, 농촌 중심마을의 공간적 입지-배분 모형의 개발(II) - 모형의 적용 및 응용성 평가 -, 한국농공학회지, 43(3), 46-55.
6. 김대식, 정하우, 2001, 농촌중심마을의 공간적 입지-배분 모형의 개발(I) - 모형의 개발 및 검증 -, 한국농공학회지, 43(2), 112-121.
7. 김숙경, 2004, 농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3, 179-202.
8.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나타난 노인의 일, 가족, 여가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49-177.
9. 김홍배, 문동주, 박준화, 2008, 지역진단 지표개발과 지역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43(1), 183-196.
10. 나준엽, 정남수, 이정재, 2006, 정보편익에 의한 농촌생활환경시설의 계획 모델 개발, 농촌계획, 12(4), 77-82.
11. 농림부 보도자료, 2012,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12. 박창석, 임승빈, 2001, 지역시설계획을 위한 정주형태 특성과 그 영향요인 분석, 國土計劃, 36(1), 25-38.
13. 서교, 이지민, 김한중, 정남수, 조순재, 이정재, 2003, 농촌의 잠재적 가치에 의한 농촌지역개발 평가지표 연구, 농촌계획, 9(1), 47-53.
14. 서교, 한이철, 이지민, 이정재, 2006, DEA와 AHP기법을 이용한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 평가모형 개발, 농촌계획, 12(4), 1-11.
15. 석소현, 김귀분, 2008,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3), 311-321.
16. 손신영, 2006, 농촌 노인과 도시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요인에 대한 비교 연구, 韓國老年學, 26(3), 601-615.
17.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18. 송미령, 김광선, 2009, 농촌 서비스 기준 도입 필요성과 과제, 韓國地域開發學會誌, 21(4), 1-18.
19. 신영선, 강영은, 오동엽, 임승빈, 2008, 농촌마을 커뮤니티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연구, 농촌계획, 14(2), 43-54.
20. 윤원근, 이상문, 1998, 농촌생활환경정비 대상 시설 항목의 선정 : 정책적 제안, 농촌계획, 4(2), 8-19.
21. 이상호, 2008, 삶의 질 지표에 기반한 농어촌 지역별 유형분류 및 요인분석, 농촌경제, 31(4), 33-48.
22. 이택영, 김진경, 2010, 도시 및 농어촌 노인의 활동수준 및 활동 정도에 따른 삶의 질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2), 402-411.
23. 임승빈, 조순재, 박창석, 1995, 취락구조 개선마을(新村型)의 주민의식 및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 53-66.
24. 채화영, 김주희, 이기영, 2011, 중·고령자의 생활시

- 간 유형화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29-146.
25. 최수명, 김영주, 황한철, 1998, 의사결정기법을 이용한 농촌지역시설 적정입지선정 모델 - 농공단지 중심적으로 -, 농촌계획, 4(1), 98-107.
26. 최연희, 2004,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건강증진행위와 삶의 질, 保健教育.健康增進學會誌, 21(2), 87-100.
27. 통계청, 2010, 200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28.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is.kr> 2010 인구주택총조사.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a,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b,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c,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32.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08, 농촌 정주환경 지표 및 자료관리 체계 구축방안.
33. 허학영, 남상채, 최상운, 오민근, 안동만, 2002, 농촌 공공기반시설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농촌계획, 8(1), 105-113.

접 수 일: (2012년 11월 20일)

수 정 일: (1차: 2012년 11월 26일, 2차: 12월 5일)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5일)

■ 3인 익명 심사필